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

주 민 선¹⁾ · 이 영 란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 및 가족의 핵가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구조의 단순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아동돌봄 기능이 약화가 발생하여 아동양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역 및 국가의 발전과 밀접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가족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돌봄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법에 의거하여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돌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Lee, Park, & Chu, 2014). 이러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방향 및 사업은 지역사회보건 및 간호차원에서 가족건강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건강가정지원법은 아동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주 양육자의 상황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접근방법이며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지원 형태의 개별보육서비스로서 시설중심의 보육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지역내의 양육경험이 있는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직업군을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의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과 가족에게 국가서비스로써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제공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아이돌보미는 거주지역사회의 아동에게 개별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아이돌보미 사업을 제공하는 전국의 각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년기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하여 가족보건, 영유아 건강증진 및 복지 차원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Lee, Chu, Park, Kim, & Choi, 2014; Lee, Park, & Chu, 2014). 이는 지역사회보건과 간호영역에서 통합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가족중심의 간호활동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며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의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Yun, 2012).

아이돌보미의 돌봄이 지역사회 가정의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미래의 인력확보와 사회안정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되어(Jun, Lee, & Bang, 2009; Lee & Kim, 2011),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측면의 긍정적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Jun, et al., 2009; Lee & Kim, 2011). 그러나, 돌봄 제공자인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Lee, et al., 2014),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적용효과(Lee, et al., 2014)와

주요어 : 아동, 아이돌보미, 경험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지원(과제번호: snjc2014-004)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2)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교신저자 E-mail: agness_lee@yahoo.co.kr)

투고일: 2016년 10월 26일 수정일: 2016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3일

아이돌보미의 돌봄이 사회에 미치는 의미(Lee & Chung, 2012)에 대한 보고는 있으나, 아이돌보미가 인식하는 돌봄활동과 중년기 여성의 재취업 활동으로써의 돌보미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경험에 대한 의미이해는 직업이 단순히 수입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정체감과 자기가치감을 제공하고(Bandura, 1997) 신규직업군인 아이돌보미의 양성과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발달과업인 생산성(Kim, & Kang, 2012; Kim, Kim, Shin, Shim, & Oh, 2014)과 신체·심리·사회적 측면의 다차원적 건강접근 및 건강한 가족발달지원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한 의미 이해는 아이돌보미 활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다(Jun & Kang, 2014).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중년기의 아이돌보미 여성이 아이돌봄 중에 갖게되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활동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파악하고 돌봄활동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상호작용 등에 내재되어 있는 반응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아이돌보미의 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아이돌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건강한 가족발달과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측면의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주제와 의미를 심층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은 거주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내의 가정에 고용되어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으로써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 경험을 서술하고 탐색하여 아이돌보미가 돌봄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아이돌봄활동에서 겪는 경험을 기술하고 탐색하여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의미 및 본

질을 파악하고자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중년 여성 10명이었다. 아이돌보미 활동은 가정 내 아동의 개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지킴이로서 보육 등을 제공한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여성은 서울소재 일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가정의 요청에 따라 개별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게 되며, 방문시간 및 간격은 개별가정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55세(50세~64세)였으며, 활동기간은 38.9개월(9개월~84개월)이고, 자녀는 1.6명(0명~2명)이었다. 연구참여자가 돌보는 아동의 연령은 0세에서 12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ID	Age (year)	Duration of care-giving experience (month)	The number of children to take care of the present
1	55	11	2
2	53	9	2
3	56	39	2
4	64	15	2
5	56	30	2
6	56	84	1
7	50	65	4
8	56	74	2
9	52	38	2
10	52	24	1

연구자 준비

본 연구의 연구자 중 책임연구자는 간호학 박사, 여성으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다수의 질적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있고, 아이돌보미 여성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공동연구자는 20년 이상 지역사회간호교육과 지역사회 내 여성인구집단 대상의 건강증진사업 및 연구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교육과정 이수 및 워크숍에 참여하였고, 아이돌보미 대상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의도표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선정기준은 6개월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여성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서울소재 일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하였다. 연구자는 아이돌보미 여성들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자료수집 방법, 연구참여시의 보상 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의적으로 동의한 아이돌보미여성을 선정하였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연구참여자의 선정을 위하여 ‘눈덩이 굴리기 표집’으로 모집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돌보미여성에게 연구의 목적, 기간, 자료수집 방법, 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동의한 자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이 적절하여(Speziale, Streubert, & Carpenter, 2011), 연구자가 개발한 개방형 질문을 연구참여자에게 질문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 중 한 명이 진행하였고 면담질문은 ‘귀하가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귀하가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이다. 면담일시는 참여자와 의논하여 정하였으며, 지역 내에서 면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참여자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연구실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2회의 면담에 참여하였고, 면담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메모를 사용하여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하였고, 의미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필사되어 자료분석 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같이 모여서 필사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에게 확인해야 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생각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면담에서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의미를 파악하였다. 면담은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29일부터 2014년 9월 17일이었다.

자료 분석

현상학적인 연구방법은 관심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로 하여금 대상자가 보는 삶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지각세계에 들어가 대상자의 경험이지니고 있는 의미를 탐색한다(Speziale, et al., 2011). 본 연구

는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이돌보미여성인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돌봄활동의 본질과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나타내는 구절이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추출된 구절이나 문장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확인하고(구성된 의미), 구성된 의미를 추상적인 진술로 기술하였다. 아이돌보미 여성들이 돌보는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개인적 특성이 다르지만,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 경험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하면서 연구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3단계에서는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돌보미 경험을 확인하고 주제로 범주화하고, 확인된 현상과 관련하여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였다. 4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연구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한 경험의 본질이었는지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5단계에서는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검토하였다. 6단계에서는 연구자가 확인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과학적 엄격성(Rigor)을 확보하기 위하여 Guba와 Lincoln(1981)의 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 적용성의 전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사실적 가치는 연구참여자에게 각각의 면담기록과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어 분석한 내용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확보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간에 면담과정과 분석한 자료를 상호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립성의 유지를 위하여 연구자들은 아이돌보미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선입견이나 판단 없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여성의 돌봄활동에 대한 의미 및 본질이므로, 적용성은 이 맥락에서의 여성에게로 제한된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에 일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No : SWCN-201404

-HR-002-06). 연구자는 참여자 등록 전에 연구의 목적, 과정, 자료수집 및 비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면담 도중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녹취된 자료는 필사는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으며, 녹취된 자료 및 필사된 자료의 보관 및 관리는 대학의 기관생명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10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 12개의 구성된 의미 및 104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아이돌보미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4가지 주제는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생기가 가득한 생활’,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Themes	Formulated meanings
Weariness from care-giving	Hard work of care-giving
	Feeling the limitation of child care providers's role
	Undervalued one's worth
Search for one's own solution	Self-reflection
	Strengthening one's mind to work for a child
	Finding a compromise
Cheerful life	A worthwhile life
	Realizing vigor in daily life
	Proudness of oneself
An opportunity to start a new life	Beginning a new relationship
	An activity that one wants to continue
	Self-development for one's future

주제 : 돌봄의 고단함

‘돌봄의 고단함’에 포함된 의미는 ‘힘든 돌봄 활동’, ‘역할의 한계’, ‘저평가된 자신의 가치’이었다.

● 구성의미1. 힘든 돌봄 활동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아이들의 활동과 요구에 맞추어 움직여야 하고 아이의 집 방문시간이나 돌봄활동 시간이 식사시간과 겹치면 제 시간에 식사를 하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다고 하였다. 돌봄활동을

하면서 아이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생각과 아이 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꼈고, 사회생활이 힘들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남에 집에서 먹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녁 먹을 틈이 없는거예요 선식 같은거 타서 다니고 했어요 배가 고프진 않는데 집에 와서 약간 생각이 나면 남편이랑 둘이 있으니까 뭐 먹고 하면 12시가 되니까 건강문제죠. (참여자가 5)

지금 아이들 보는건 내 아이가 아니고 보수를 받고 하는거라 조심스럽고 저는 컴플레인 나는게 싫어서 이용자한테 어떻게 케어할지 물어보고 그대로 메모했다가 하거든요 어쨌든 아무래도 신경써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애들이 하자는 거 잘 안할 때 떼쓰고 그럴 때 어머님이 시키신 건데 안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쓰여요 괜히 앞서서 생각하는게 제 문제인 것 같긴한데, 꼭 그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따라주는 게 힘들어요. (참여자가 6)

● 구성의미2. 역할의 한계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의 범위와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적절할 때 훈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들의 훈육에 관여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다.

제일 힘든 건 마음은 내 자식처럼 애들 만나는 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어느 선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해야 될 행동 같은 거에 막연한 선이 있어서 그럴 때 안타까워요 하물며 남의 애기니까. 말을 해야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말해서 전달하는 건 하는데, 아이한테는 못 말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전달할지 몰라서. 그럴 땐 좀 지켜보죠 (참여자가 1)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도 이대로 받아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훈육을 해야 하나. 만약 훈육을 한다면 나는 돌보미 인테 부모가 좋아할까. 내 자식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점은 고쳐주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데, 돌보는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이 돌보미 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죠 (참여자가 3)

● 구성의미3. 저평가된 자신의 가치

연구참여자들은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였다. 돌보는 아이의 가족에게 무시당하거나 의심을 받거나 보수가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낮으므로 돌봄제공을 받는 가족과 사회가 자신들을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였다.

근데 그 부모님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녹음기를 가려놓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녹음을 한거죠 근데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개의치는 않아요 녹음하는데서만 잘하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이 집에서 의무만 다 해주고 오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자존감이 진짜 이 돈을 안 벌어도 아무지장이 없는데. 이걸 뭐가. (참여자 2)

일을 하면서 몰상식한 이용자를 만나면 우리를 굉장히 무시해요 그러다보니까 나는 실제로 자질이 높는데, 남들이 보기엔 스펙이 없어 보이거나 보다.....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저한테 너무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참여자 10)

주제 :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에 포함된 의미는 ‘자기 성찰’,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 ‘타협안 찾기’이었다.

● 구성의미1. 자기 성찰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양육했던 경험을 되짚어보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되돌아보았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고, 돌보는 아이나 부모와 갈등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살피게 되었다.

아들은 제가 생각해도 잘 못 키운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젊은 엄마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박사로 키우면 뭐해요 사람이 되야지.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애키우면 잘키울 것 같아요 그땐 나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최선을 다해서 키웠지만 지금 같으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참여자 4)

그때는(유치원 교사로 일할 때) 제가 나이가 어려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뻐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런 애만 좋아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엔 그렇게 애들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이제는 애들이 참 소중한데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일 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여자 8)

● 구성의미2.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

연구참여자들은 돌보는 아이를 혈족처럼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자식같이, 손자같이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랐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정형편이 나쁜 아이를 만나면, 안쓰러워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였고, 힘들어하는 아이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이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어리광을 부리는구나 그런 심리적인 해방구 역할을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싶

어서 가끔을 포용해주기도 하고 저희 애들 키울때는 이성적으로 키웠어요 근데 애네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같은 심정이랄까. 뭘 해도 다 이쁜. 근데 너무 버릇없고 공부 안 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참여자 3)

아이들한테 엄청 정성스럽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까진 안했어서. 신경이 더 써지죠 하다보면 애들처럼 그렇게 되요. 이걸 나쁘니까 안 해줘야겠다든가. 전자렌지 안 좋다 하나까 냄비에 해주고 건강에 안좋다니까. 내가 돌보는 애한테 안 좋다니까 안하게 되더라고요. 하다보면 정말 정이 많이 들어요 저는 번거롭더라도 유리에 태워서 해주죠 (참여자 7)

● 구성의미3. 타협안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돌봄방식을 찾거나 정하게 되었다. 돌봄활동에서 겪게 되는 아이 부모와의 갈등이나 아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부모를 이해하려 하거나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 놀이 준비를 하였고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타협안을 찾아 나갔다.

저는 색칠하는 프린트가 있는데 저희 이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걸 학교에서 프린트를 해다 주시거든요 큰애들한테 갈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가요 색칠하는 거 가지고 가면 좋아해서 그런 거 챙겨서 가지고가요 (참여자 6)

처음에는 무조건 주자 그러다보니까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남의 아이라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안되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9)

주제 : 생기가 가득한 생활

‘생기가 가득한 생활’에 포함된 의미는 ‘가치 있는 생활’, ‘일상의 활기를 찾음’,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이었다.

● 구성의미1. 가치 있는 생활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돌봄활동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정을 느끼고 아이들의 반기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다. 또한 자신들의 돌봄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여서 보람을 느꼈다.

어떤 때는 애들이 좋다고 매달리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좋다고 그러면 이용자님들이 다른 선생님 오면 우는데 선생님은 애들이 좋아하니까 아빠도 좋아 한다. 그러면 저도 너무 뿌듯해서 힘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돌봐주면서 보람 느끼고 (참여자 6)

아기가 처음에는 그냥 인사했는데, 제가 놀면서 인사는 배꼽인사로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애가 그렇게 배꼽인사를 하면 저는 더 바랄게 없는 거죠 교육이 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보수예요. 엄마가 일찍 집에 와도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애기가 편안해 하는걸 보면 뿌듯해서요 내가 엄마랑 별반 다르지 않게 해줬나 그런 거 때문에. (참여자 9)

● 구성의미2. 일상의 활기를 찾음

연구대상자들은 돌봄활동으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돌봄활동을 통해 일상의 무료함이 감소되었고 즐거움이 생겼으며 돌봄활동이 생활의 활력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건강해짐을 느꼈고, 건강을 더욱 더 관리하게 되었다.

활력소가 생기고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제가 즐겁게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저 진짜 즐거워요 지금 제 나이 친구들은 무슨 무슨 약을 많이 먹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식사조절하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집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나가서 활동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아프지도 않고 좋아요. (참여자 4)

안 먹으면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 건강까지 헤치면서 활동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주로 걸어요 많이 걷고 땀 수 있으면 골고루 음식을 먹려고 하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참여자 7)

● 구성의미3.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

연구대상자들은 돌봄활동에 대한 자기효능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아이와 부모가 자신을 믿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면서, 돌봄활동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하였고, 활동에 만족해하였다.

그 아이가 제가 공을 들어서 발전하고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 기뻐하고 제가 느끼기에 저를 인정해 줄때 그럴 때 괜찮다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괜찮게 보는구나. 그럴 때 좋았어요. (참여자 2)

저를 애들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아이들에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를 많이 따르고 의지를 해요 부모님보다도 의지를 많이 하니까 이쪽에 내가 자질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좋아요 저를 굉장히 신뢰하세요 모든 걸 다 의논하시고. (참여자 3)

주제 :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에 포함된 의미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 ‘지속하고 싶은 활동’,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이었다.

● 구성의미1. 새로운 관계의 시작

돌봄활동은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연구참여자들은 수입이 생기면서 가계에 도움이 되어 기뻐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변화되었다. 또한 활동과 관련된 대화소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였다.

우리 아저씨가 돈을 버니까 좋아해요 우리 아저씨랑도 대화가 늘었어요 전에는 대화가 없었어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부부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생활이 애 덕분에 리듬이 있어서 좋아요 그 동안은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어요. (참여자 4)

남편과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반찬값이라도 벌어야겠다 해서 일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편안해지는 데 됐죠 일단은 싸울 시간이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더 부딪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남편도 운동도 하면서 자기관리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참여자 7)

● 구성의미2. 지속하고 싶은 활동

돌봄활동을 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였고, 돌봄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돌봄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체력을 관리하였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하다가 보면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고 하니까 남편이 못하게 할까봐 힘든 얘기를 못해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는 거 보면 이쪽으로 취향이 있는 게 아닌가 보람도 있어요. (참여자 3)

제가 센터에서 나이가 많아서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다는 것 보단 그 정도는 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것 만 해도 감사해요. (참여자 4)

● 구성의미3. 미래를 위한 자기계발

연구참여자들은 활동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관심 영역이 확장되었다. 미래를 위해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돌봄활동으로 생긴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였다.

애하고 따라가려니까 하나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배워야겠더라고요 지금 배운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돌보미 안 할 때는 컴퓨터 자체도 몰랐

어요 활동일지 쓸 때도 센터선생님한테 신세지는 것도 한 두 번이지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해서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돌보미 해서 번 돈으로 노트북 하나 샀어요 완전히 성장했죠 (참여자 4)

고령화 시대라 오래 사는 것도 있고, 죽는 날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요. 수다 떨면서 어울려 다니고 그런 거는 다 해봤고 좋지도 않고 해서 별로예요. 그거하고 다르게 저는 길게 보는 거니까. 나중에 어린이집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려고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애들을 돌봐주면 어떨까. (참여자 5)

철저한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s)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피곤함을 느끼며, 역할의 모호함에 혼란스러워 하고, 역할의 한계로 회의감에 젖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보는 아이 가족의 무시나 적은 보수, 사회적인 낮은 인식으로 인하여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면서 돌봄활동을 고단하게 느낀다. 이러한 갈등상황을 경험하면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돌보는 아이를 위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가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에 아이 부모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신들만의 돌봄 방식을 정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타협안을 찾아 나가면서 갈등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한편으로 돌봄활동을 하면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기쁨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는 아이돌보미여성들의 생활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건강해짐을 느끼며 일상이 활기차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대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생기가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된다.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긴다. 아이돌보미여성들은 돌봄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게 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확인하여 지역사회 내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의 중심적인 주제는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생기가 가득한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이었다.

첫 번째 주제인 ‘돌봄의 고단함’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이 신체적으로 힘이 들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든 활동이며, 돌봄활동의 범위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역할의 한계를 경험하고 부적절한 가족의 태도와 낮은 보수를 통해 주변의 저평가 된 직업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들은 아이돌봄 활동이 돌봄제공자가 신체적으로 뿐 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힘든 활동이라고 하였다. 아이 돌봄활동이 돌봄과 더불어 신체, 정신 및 사회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양육활동이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돌보미의 직업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고 혼계와 혼욕에 있어 역할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Kim, 2011; Kim & Chung, 2011). 또한 아이돌보미의 돌봄활동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형성되므로 행위에 앞서 관계가 중요한 상호작용의 활동이고 아이돌보미의 주요 관계형성 대상인 아이 엄마의 돌봄활동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아이돌보미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Lee & Chung, 2012). 사회적으로 낮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이 아이돌보미 활동의 고단함과 힘든 주된 이유이다. 돌봄활동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행위이다. 아이돌봄활동은 아이를 위한 행위이며 가족과 사회의 유지를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는 아이돌봄활동을 전통적으로 여성이 헌신으로 책임져 온 무보수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Kim, 2011; Kim & Kang, 2007; Lee & Chung, 2012).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여성고용과 가족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국가지원 방식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이돌보미는 비정규직의 낮은 고용안정성과 보수에 직면되어 있다(Moon, 2008).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경험의 첫 번째 주제인 ‘돌봄의 고단함’이 직업적 소진, 직무만족도, 이직과 관련이 깊고 직업의 질에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임금, 고용계약형태와 일자리의 안정성이 중요 요소이며(Kim, 2007) 아이돌보미의 일에 대한 가치감과 조직에의 소속감이 직업적 소진을 줄일 수 있으므로(Kim, 2013)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돌보미 여성의 활동과 직업에 대한 직업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경력에 따른 보수의 책정 등 적정한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돌봄의 고단함을 해소할 수 있는 총체적 측면의 건강증진 전략이 요구된다. 상호작용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여성의 감정노동이 직

업적 소진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고(Kim, 2013) 직 무지속의사와 관계가 있으며(Ji, Kim, & Lee, 2013) 인간관계 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무만족도(Hwang & Yun, 2012)와 이직과 관련된 중요변인이므로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이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아이돌보미의 감정노동 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가 요구된다.

돌봄활동 경험의 두 번째 주제인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돌봄제공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는 ‘자기성찰의 태 도’, 아이를 자신의 혈족처럼 생각하고 가깝게 여기는 측은지 심의 ‘아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타협안 찾기’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돌봄이 직업으로써 상품화되고 사회화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는 모성의 역할과 직업으로써의 노동자 역할 사이 에서 갈등을 겪는다(Kim & Kang, 2007). 본 연구에서 아이돌 보미 여성은 갈등을 확인하고 자기성찰을 함으로써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아이돌보미 사용자의 아이돌보미 선택 선호조건이 자녀양육경험이 있는 중년여성이 므로 아이돌보미가 아이에 대한 모성본능의 감정과 아이부모 의 양육부담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는 간호사 가 돌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성찰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환아를 돌보는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문제해결의 방법이다(Kang, & Bang, 2013). 아이돌보미가 사 회적으로 공익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돌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Kim & Kang, 2007). 또한 아 이돌보미의 직무경계가 모호하고 직무 표준화가 어려워(Lee & Kim, 2011) 아이돌보미 스스로 직무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고 직무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돌보미 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이고 직무만족도 및 이직과 관련이 있 으므로(Lee, et al., 2014) 직무 내 갈등의 원인과 파생되는 문 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해 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돌봄활동 경험의 세 번째 주제인 ‘생기가 가득한 생활’은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돌봄활동 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있는 생활’로 인지하고 건강과 외모 등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일상의 활기를 찾고’, 직업을 통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을 갖게 되어 ‘자랑스런 자신을 발견’하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아이돌보미는 신 규직업군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반 하에 가정 내 아동의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Lee, et al., 2014) 정부지원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중년여성의 고용을 촉진시켜 여성 개인과 가족에 도움이 되며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을 위한 조력자로서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은 긍정적인 가족정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중년 여성의 경험 을 활용한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향상과 고용둔화 현상을 타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활동은 나이 든 여성의 어머 니다움을 요구함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활 성화하고(Kim & Kang, 2007) 자신들이 자녀를 직접 키웠던 때와 다르게 변화된 사회에서 돌봄 대상자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공적인 육아지원인력인 자신들을 일과 가정의 양립 을 돕는다(Lee & Chung, 2012). 이러한 점은 중년기 아이돌 보미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활동의 참여가 여성의 삶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돌봄활동이 사회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Lee & Chung, 2012) 아이돌보미 활동을 가치 있고, 자신을 자랑스럽 고 능력이 있게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 아정체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Kim & Kim, 2001) 삶의 질, 우울 등이 수입과 관련이 있으며(Park, Kim, & Cho, 2003)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한 수입의 창출이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하고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고 사료된 다(Byun, Kang, & Chung, 2007).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에 도 불구하고(Rosenthal, Crowley, & Curry, 2008),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여성이 의미나 헌 신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im, 2011) 아이돌보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이에 따 른 직업적 고용안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아이돌보미 여성의 삶의 행복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과 중재를 제공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아이돌봄활동 경험의 마지막 주제는 ‘새로운 삶을 위한 발 판’이었는데 경제적 측면과 가족 내 대인관계 측면에서 ‘새로 운 관계의 시작’이며 ‘지속하고 싶은 활동’으로 인식하고, 직 업을 통해 삶의 관심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미래를 위한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계발 이 일에 대한 애착과 직업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 요인이라고 보고한 유희간호사의 재취업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었으며(Byun, & Kim, 2008), 중년여성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수입이 우울 등의 정서적 측면과 여성의 전반적인 삶 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Park, et al., 2003), 아 이돌보미 활동경험이 여성의 삶의 변화 또는 전환점으로 작 용하였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여성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사회활동의 수, 주관적 경제평가와 자아존중감이 고(Chung, 2007), 노후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가 높을수록 생 활만족도가 높음을 고려할 때(Ahn, Kim, Ahn, & Kim, 2009)

본 연구에서 아이돌보미 중년여성이 삶의 변화와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발판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성공적인 직업적 활동과 노후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직업이 자아존중감, 주관적 경제적 평가와 노후에 대한 준비도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이다. 10명의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Colaizzi(197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은 ‘돌봄의 고단함’, ‘자신만의 해결방법 모색’, ‘생기가 가득한 생활’과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의 4가지 주제로 구조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와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에 따른 신규직업군인 아이돌보미 중년 여성의 돌봄활동 경험을 깊이 있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아이돌보미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 및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중년기 여성 아이돌보미의 아동돌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돌보미 중년여성의 돌봄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와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돌봄의 수혜자인 아동과 가족의 안정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의 안정화의 토대가 될 것이며 건강한 가족 발달과 지역사회 발전의 이해촉진의 간호교육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Ahn, H., Kim, H., Ahn, J., & Kim, Y. (2009). Effects of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old age and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137-15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The exercise control*. (Park, Y. S. & Kim, E. C., Trans.)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 Byun, Y., & Kim, M. (2008). Re-employment experience of nurses who have left the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s, 38*(5), 768-778.
- Byun, M. H., Kang, K. J., & Chung, H. J. (2007). Service and policy direc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1*(2), 67-83.
- Chung, S. A. (2007).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successful aging of Korean women-the young adults, middle age, and old age wome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6*(몇호?), 201-220.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 Hwang, H. S., & Yun, M. J. (201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helpers in Seoul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4), 63-71.
- Ji, E. G., Kim, M. J., & Lee, W. J. (2013).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personal relationship in the intent to stay for care worker. *Korean Social Policy Review, 20*(3), 141-170.
- Jun, C. A., Lee, J. N., & Bang, H. B. (2009). The current state of families using the in-home care service and satisfaction in service according to family typ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7*(3), 225-237.
- Jun, Y., & Kang, K. (2014). Development of the tool for measuring the care satisfaction of home health nursing based on Watson's theory of human caring. *Journal of Public Health Nursing, 28*(1), 57-70.
- Kang, H., & Bang, K. (2013).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urses' experience in caring for infants who are dying.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4), 252-261.
- Kim, E. H. (2007). A comparative analysis of job quality and labor productivity and distribution. *Social Welfare Policy, 30*, 115-141.
- Kim, E., & Chung, S. A. (2011). Study on the adaptive experience of a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focused on family with working mother.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1*, 177-213.
- Kim, K., & Kang, E. (2007). Motherhood and labor in the context of commodifying care work. *Discourse, 201. 10*(4), 71-106.
- Kim, J. S., & Kang, S. (2012).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Public Health Nursing, 26*(3), 440-452.
- Kim, K. S., & Kim, J. R. (2001). The effects of ego-identity and crisis on quality of life in midlife marri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4), 105-120.
- Kim, S. H. (2011). Start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4), 19-41.
- Kim, T. I., Kim, H. S., Shin, Y. H., Shim, M. K., & Oh, W. H. (2014). *Growth development and Health*. (2nded.). Pajusi: Kyomunsa. 365-366.

- Kim, Y. N. (2013). The effect of the emotional labor of social care service workers on their burnout level-analysis on moderator effect of perceived value of work and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7, 123-148.
- Lee, G., & Chung, K. (2012). Childcare service providers' care experience and their meanings of social car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419-441.
- Lee, S., & Kim, S. (2011). A basic study on public nanny service characteristics and improv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4), 51-65.
- Lee, Y. R., Chu, M. S., Park, S. N., Kim, H. I., & Choi, H. S. (2014). Effects of a health promotion program on perception of health behavior, physical fitness and body composition in child care help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8(1), 138-149.
- Lee, Y. R., Park, S. N., & Chu, M. S. (2014). Impact of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child care provi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Home Care Nursing*, 21(1), 26-35.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Outline of child care service in 2013*. Seoul.
- Moon, S. (2008). *An exploratory study on quality of employment of care workers*. Social Welfare Policy. 33, 207-237.
- Park, H. S., Kim, S. K., & Cho, G. Y. (2003).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9(4), 479-488.
- Rosenthal, M. S., Crowley, A. A., & Curry, L. (2008). Family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 in health promotion. *Family & Community Health*, 31(4), 326-334.
- Speziale, H. S., Streubert, H. J. S., & Carpenter, D. R. (2011).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dvancing the humanistic imperative*.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33-51.
- Yun, M. J. (2012).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helpers in Seoul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4), 63-71.

The care giving experience of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Chu, Min-Sun¹⁾ · Lee, Young-Ran²⁾

1)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henomenological study was to explore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 in caring for children in the community.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0 middle-aged child care provide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2014 until data. Colaizzi's method of data analysis was applied to inductively determine themes and formulated meanings. Data saturation was achieved and methodological rigor was established. **Results:** Four themes were extracted from 12 meanings. The four themes of the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 in caring for children were: 1) weariness from care-giving, 2) the search for one's own solutions, 3) a cheerful attitude to life, 4) the opportunity to start a new life.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child care providers' experiences in caring for children and establishing effective strategies to support these child care providers.

Key words : Child, Care provider, Experienc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fund in 2014. (No: snjc2014-004).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oung-Ran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38 Ganhodaero-ro, Seodaemoon-gu, Seoul, 120-742, Korea
Tel: 82-2-2287-1731 Fax: 82-2-2287-1700 E.mail: agness_lee@yahoo.co.kr